

# 본회, 임병식회원, 돼지새끼 분만 자동경보장치 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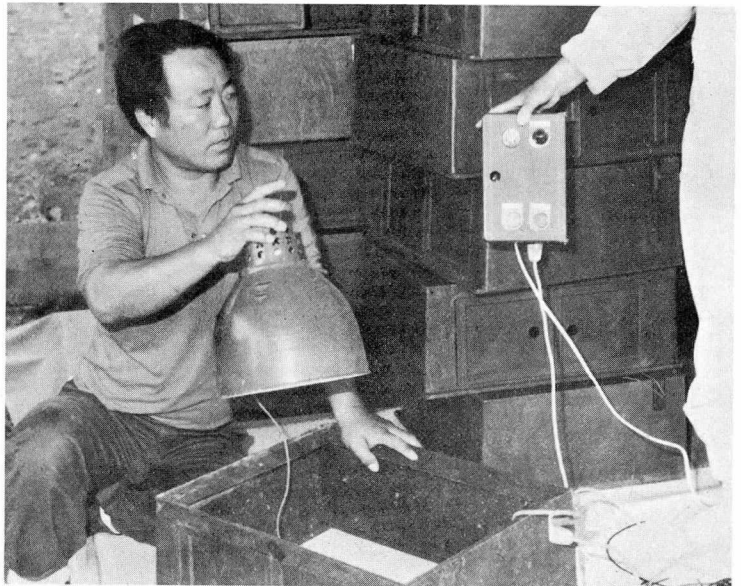
“이제 한겨울 밤에 분만돈 옆에서 비상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자동경보 장치를 통해 안방 또는 사무실에 있는 주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새끼를 낳자마자 보온등에 불이 자동으로 켜져 겨울철 신생자돈의 동사를 막아주는 「돼지새끼 분만 자동경보장치」가 발명돼 양돈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양돈농가들은 돼지 분만시점이 가까워지면 이제나 저제나 하며 분만사를 수시로 들락거리며 분만유무를 확인해야 했고, 또 추운 한겨울에도 분만때가 되면 밤잠을 설치면서 모돈옆에서 비상대기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특히, 이 경보장치의 발명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돈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신생자돈의 폐사율 감소와 적절한 분만후 처치를 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새끼 분만 자동경보장치」를 개발한 화제의 주인공은 본회 울산울주지부(지부장:성정표) 회원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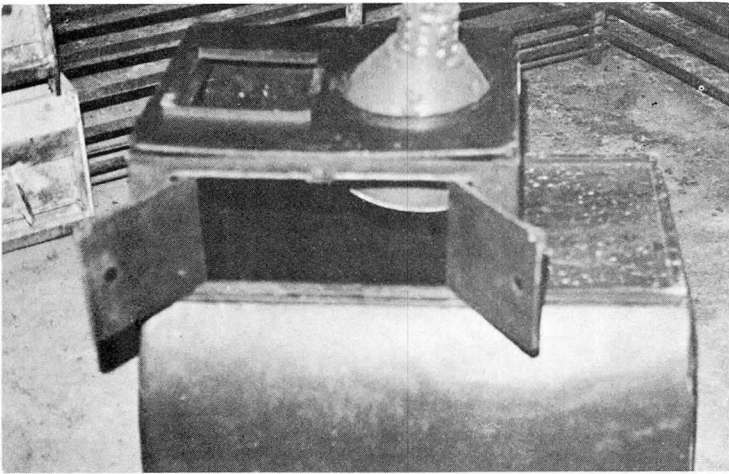
▲임병식씨가 자신이 발명한 분만자동경보장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도 하며, 경남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 171-5번지에서 젓소 20마리와 돼지 2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임병식씨(48세).

임병식씨는 자동경보장치를 개발하고 난후 신생자돈의 동사가 한 마리도 없을 뿐 아니라, 검엽하고 있는 목장일도 마음놓고 볼 수 있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있어 좋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2년간 170~180두의 신생자돈을 얼려 죽인것이 분만 자동경보장치 발명 동기**

임씨가 이것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79년부터 젓소를 사육해오다 '85년에 소값파동으로 양돈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양돈기술 부족과 돈사와 거주하는 집이 150여m나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분만사를 가보지 못하는 관계로 첫째와 그 이듬해 겨



▲분만이 끝나면 분만통은 보온상자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다.

울에 170-180두의 신생자돈의 얼어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7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2년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 기어코 자동경보장치를 발명하고자 말했다.

자동경보장치는 분만할때 새끼가 떨어지는 분만통과 안방과 사무실 등에 부착하여 새끼가 분만되었을 때 부자가 울리는 경보장치, 그리고 보온통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만통은 가로 44cm×세로55cm×높이 22.5cm크기로 사다리꼴 모양인데, 안쪽 1개면에 넓이 10cm의 접지판을 부착해 놔다. 자돈이 분만되어 분만통에 떨어지면 돼지의 습성에 따라 주둥이로 이 접지판을 건드리게 되는데, 접지판을 건드리면 접지판과 분만통 사이에 연결해 놓은 동관으로 된 접지선이 연결되어 경보장치에 부자가 울리는 동시에

접지선에 연결된 보온통에 불이 켜져 동사를 방지해 준다.

부자소리는 보통 20-30m서도 들릴 정도로 크고, 안방과 사무실을 연결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 첫새끼가 분만된후 대개 10초정도 지나면 접지판을 건드려 경보음이 울린다. 자동경보장치는 분만통이 있는 돈사에 설치하는 수직식과 평사에 설치하는 수평식 등 2가지가 있다.

자동경보장치를 분만통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면 감지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 그러나 평사에서는 50~70%밖에 감지되지 않아, 가능하면 분만통을 설치한 농장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분만통이 설치된 기존돈사에서는 돈분뇨가 떨어지는 곳에 플라스틱 한장 크기를 분만할때 열어놓고, 그 아래에 분만통을 설치하면 된다. 그후 분만이 완전히 끝나면 분만통과 보온통을 조립, 보온상자로 이용하면 된다.

## 특허청에 특허등록과 의 상등록 출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돼지새끼가 언제 낳는지 신경을 안써도 되고 잠을 편히 잘수 있으며, 다른 일을 하다가 분만이 시작되면 분만사로 가보면 되고, 동사방지와 압사방지는 물론, 초유전 예방접종을 100% 할 수 있어 생산성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임병식씨는 울주군내 5개 농장에서 시험사육을 거쳐 합격판정을 받고 '89년 2월 14일 특허청에 특허등록(출원접수번호 1896호)과 의장등록(출원접수번호 1819호)을 출원했다.

현재 임씨는 본회 울산울주지부의 추천을 받아 전국의 양돈농가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성정표 본회 울산울주지부장은「본 지부 회원이 개발한 만큼 판매를 앞선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급가격은 경보장치와 분만통, 보온통 1세트에 15만원이며, 설치에서부터 애프터서비스까지 일체를 책임진다고 했다.

자동경보장치는 100V용과 220V용 2가지가 있다.

자동경보장치의 발명으로 앞으로 양돈농가들은 한겨울 추운밤에 분만돼지 옆에서 비상 대기하는 일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이다. **■**

취재 : 김 동 성